



진인출현설에 대한 연구

(지난호에 이어서)

순조 11년(1811) 음력 12월에 일어난 흥경래의 난은 정(鄭) 진인(眞人)이 나타나 철기(鐵騎) 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군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앞서서 기병한다는 이야기를 핵심으로 삼아 일어난 사건이다. 난이 평정된 후 관련 측 인사들이 가담자들을 심문한 결과, 진인출현설은 봉기군 측이 민심을 선동하고 규합하기 위해 꾸민 이야기라고 결론지었다.

봉기군 측이 순조 11년(1811) 12월 18일에 남독한 격문에는 “세상을 구할 성인(聖人)이 평북 청전강 북쪽 검산(鏡山) 일월봉(日月峰) 아래 군왕포(君王浦) 위쪽에 있는 가야동(伽椰洞) 홍의도(紅衣島)에서 탄생했다. 다섯 살 때 신승(神僧)을 따라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황명(皇明)의 세신유족(世臣遺族)과 철기(鐵騎) 십만 명을 거느리고 장차 우리나라를 깨끗이 하러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관서평난록(關西平亂錄)」에는 진인이 정시은(鄭時殷), 정시수(鄭時守), 정제민(鄭濟民) 등으로 불리는 41세의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관군 측에서 진인(眞人)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정세규(鄭世圭)라는 노인을 찾아가 조사한 「관서평난록(關西平亂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로부터 약 50년 전에 정세규의 형수가 고깃덩어리처럼 생긴 괴물을 낳았으므로 보기가 끔찍해 벗질을 쌓아둔 데에 버렸다가 땅에 묻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흔적조차 없으니, “아마, 장군을 낳았구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론가 가고 흔적이 없구나.”라고 추측하여 밝은 말이 빌미가 되어 맹랑하게 풍문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다른 자료에도 보인다. 「관서평난록(關西平亂錄)」의 또 다른 기록에는 어느 정씨네 집 부인이 잉태하여 난산으로 신고(辛苦)하다가 괴물 모습의 아이를 낳아, 놀랍고 괴이하여 울타리 뒤에다 묻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튿날 이웃집 여자가 찾아와 해산했는데도 아이가 없음을 의심하여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으니, 세상에서 말하듯이 장군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론가 가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식한 여자가 터무니없이 지어낸 말이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로까지 번졌으며, 난을 꾸미는 주동자들이 민심을 선동하는데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 관군 측의 심문에 진술자들이 답한 내용이다.

결국 조동일은 두 자료가 일치하며, 유언비어가 과장되어 엄청난 이야기로까지 발전했다는 관군 측의 조사 결과는 믿을만하다고 결론짓는다. 장수나 진인이 나타나야 한다는 기대가 계속되던 차에, 태어나자마자 자취를 감춘 아이가 있다는 풍문이 돌았으며, 그 아이가 바로 진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생겨났고, 이러한 추상적인 기대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자 진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생동하게 되었다고 본다.

「관서평난록(關西平亂錄)」의 기록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자취를 감추었다는 아이는 다섯 살 때 중국에 갔다가 홍의도(紅衣島), 신도(新島) 등으로 불리는 섬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신승(神僧)을 따라 중국에 갔다고도 한다.

결론에서 조동일은 민란이 일어나게 된 고조된 분위기가 추상적인 기대와 구체

한국의 보물, 해인<35>

적인 근거를 결합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처럼 ‘진인 이야기’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되풀이되어온 구조를 되찾으면서 거듭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동일은 진인출현설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17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진인출현설은 전승되는 이야기 유형이면서 역사의 새로운 움직임과 밀착되어 구체화하고 거듭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진인출현설은 민중운동의 퇴조기에는 일단 사라지거나 불신(不信)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 새삼스럽게 형성된 이야기인 것처럼 긴박한 설득력으로 민심을 선동하고 규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동일은 이야기의 형성 시기 자체는 그다지 문제로 삼지 않고 이야기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정도령출현설의 등장

『정감록』은 오랫동안 금서(禁書)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사본(寫本)으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그 전파과정에서 전사자(轉寫者)의 의도에 따라서 본래의 내용이나 형식이 새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감록』의 작자를 정확히 알아내는 일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정감록』은 단일한 책자가 아니라 수많은 판본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감록』이 과연 언제쯤 편찬되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실마리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논의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자.

숙종(肅宗) 20년(1694) 폐비(廢妃) 민씨(閔氏) 복위 운동을 반대하던 남인(南人)이 화를 입어 실권하고 소론(少論)과 노론(老論)이 재집권하게 된 갑술환국(甲戌換局) 때, 이른바 해도가병설(海島起兵說)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당시 한국을 지도한 소론 측의 주요 인물인 강만태(康晩泰)가 “임대(任岱)가 말하기를 갑을(甲乙) 양년(兩年) 사이에 (정씨 성을 가진) 진인(眞人)이 마땅히 출륙(出陸)할 것이니, 장차 가서 맞이해야 하는데 너도 꼭 은자(銀子)를 내라!”고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간하여 은자를 내놓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해도가병설의 전형적인 내용이다.

경종(景宗) 1년(1721) 경종이 즉위하자, 이듬해에 노론(老論)은 왕위를 계승할 세제(世弟)를 책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연잉군(延昞君, 훗날의 영조英祖)을 세제로 정하였다. 또 몇 달 후에 노론은 연잉군에게 왕권을 대행시키는 대리정청(代理聽政)을 하도록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대리정청은 소론(少論)의 극렬한 반대로 취소되고 말았다. 소론은 그해 12월에 노론의 횡포를 공격하여 일부 인사들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듬해 3월에 목호릉(穆虎龍)이란 인물이 노론 명문가 자제들의 역모(逆謀) 사건을 고발하여 실육을 동반한 신임사화(辛壬士禍)라는 대대적인 옥사(獄事)가 일어났다. 이때 왕권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김창집, 이맹명, 이견명, 조태제 등을 포함

하여 무려 60여 명의 노론계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숙청되었다. 이로써 노론은 소론에 대하여 극도의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 신임사화는 노론이 너무 성급하게 영조(英祖)의 왕위계승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범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소론(少論)은 경종(景宗) 연간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노론(老論)과의 대립에서 일단 승리하였다.

그러나 경종 4년(1724) 8월 경종이 갑작스레 서거하자, 노론이 지지한 영조(英祖)가 왕위에 즉위하였다. 그러자 영조의 후원 세력이었던 노론이 득세하자 신임사화(辛壬士禍)는 소론들이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반복되었다. 즉 노론 자제들의 모의는 역모(逆謀)가 아니라 충정(忠情)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고 재규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소론들은 정권에서 실각하게 되었으며, 신임사화를 준엄하게 처리하고자 주장했던 소론의 급진파들은 더욱 큰 위협을 느꼈다. 박필현(朴弼顯), 이유익(李有翼), 심유현(沈維賢) 등 소론의 일부 과격파들은 당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수의 남인(南人)과 소북(少北) 인사들을 규합하여, 영조의 세제 책봉 자체의 부당성, 경종(景宗)의 사인(死因)에 대한 의혹, 영조가 숙종(肅宗)의 아들이 아니며 경종의 죽음에 관계되었음 등등 여러 가지 소문을 유포하였다.

결국 이들은 영조와 노론 정권을 타도하고자 인조(仁祖)의 장자(長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증손(曾孫)인 밀풍군(密豊君) 탄(坦, ? - 1729)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자 모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거병에는 유민(流民)의 증가, 도적의 치성(熾盛), 민중의 저항적 분위기의 고조 등 당시 어려웠던 사회상이 반영되었다.

반란주모자들이 반란에 동원했던 병력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집에서 부리고 있던 하인과 노비 소작농들이거나, 전라도 부안(扶安)과 경기도 양성(陽城) 등지의 산악에 소굴을 가지고 있던 명화적 무리인 녹림당(綠林黨)패들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양성의 녹림당은 훗날 반군의 부원수로 추대되었던 정세운(鄭世運)이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녹림당의 무리는 ‘정도령출현설(鄭道令出現說)’을 믿고 있었는데, 정세운은 자신의 성이 정씨였으므로 은근히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암시하였다.

결국 이인좌(李麟佐)가 영조 4년(1728) 3월에 청주성(淸州城)을 함락하고 경종(景宗)의 원수를 갚겠다고 선전하면서 서울로 북상하였으나, 3월 24일에 안성과 죽산에서 관군에 의해 격파당했다. 당시 청주성에 남아있던 세력도 창의군에 의해 토벌되었다.

영남에서는 정의랑(鄭希亮)이 거병하여 안음, 거창, 함천, 함양 등을 점령했지만, 경상도관찰사가 이끄는 관군에 의해 궤멸되고 말았다. 당시 호남에서는 박필현(朴弼顯) 등의 가담자들이 거병 전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 사건은 발생한 해의 간지(干支)를 따서 흔히 ‘무신란(戊申亂)’이라고 부른다. 이때 변산(邊山)에 웅거하던 노비 도적도 난의 중심 세력이었다. 정석종의 『조선 후기 이상향 추구 경향과 삼봉도』(1990)에 따르면, 이들 세력을 이끌던 정팔룡(鄭八龍)은 ‘정도령(鄭都令)’으로 불리던 유력자로서 이른바 ‘청룡대장(靑龍大將)’ 12명 가운데 제 1장으로 출병하였다고 한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7회》

목차	원컨대 여래시여, 비밀히 감춘 보배를 설하소서.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불법(佛法)이란 곧 진실한 삼보를 알아서 무아(無我)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무아경지에 들어가는 법문(法門)을 알아보기로 하자.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지난호에 이어서)	... 기왓장을 깔아서 거울을 만들수 없듯이 ‘나’를 깔고 닦아서 무아(無我)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我堂僞作 依眞僧處	(仙佛家眞修語錄 摩訶品) 煉以心死則神活
아당위작 의진승처	연단을 함으로써 마음이 죽은즉 신이 산다.
내가 마땅히 진실한 승의 귀의처를 지으리라.	여기서 마음이라 함은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즉 ‘나(假我)’의 마음을 말한다. 신이라는 것은 원신(元神)이라고도 하고 천신(天神), 진신(眞神), 본신(本神)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곧 본래의 부처님 마음을 가리킨다. 내 마음이 죽으면 부처님의 마음(불성:佛性)이 산다는 뜻이다.
迦葉復說偈言	蓋心血心屬 元神屬
가섭이 다시 계승을 설하여 말하되	개혈심속음 원신속양
不知三寶處 云何作無我	혈기의 마음이 덮은즉 음에 속하고 원신은 양에 속한다.
부지삼보처 운하작무아	
삼보처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무아(無我)를 이루며	
云何歸佛者 而得於安隱	
운하귀불자 이득어안은	
어찌 부처로 돌아가서 열반을 얻으리요.	
願說於如來 秘密之寶藏	
원설어여래 비밀지보장	



陽盛則陰衰 양성즉음쇠 양이 성한즉 음이 쇠한다.

부처님 마음이 살아나면 마귀(假我)의 마음은 죽는다. 부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나’의 마음은 소멸되기 시작한다. 그 때 비로소 아상(我相)의 마음은 죽는다. 부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나’의 마음은 소멸되기 시작한다. 그 때 비로소 아상(我相)이 꺾이는 것이다. 제일 우선으로 아상이 꺾여야 자비로운 마음, 희생적인 마음, 겸허한 마음이 이루어져 무아(無我)의 경지에 계합(契合)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또한 내 이웃과 형제를 부처님처럼 받들면서 공양하는 것이다. 개운조사(開雲祖師)께서도 자신의 아만함을 다 버리고, 어디

로 연마하여 맑아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 점증(漸證)이라고 하고, 둘째, 활구(活句)를 참구(參究)하여 단번에 불꽃 깨치는 것을 돈증(頓證)이라고 하여 구별한 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참선(參禪)을 하여 돈오(頓悟:문득 깨닫는 것) 하는 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단계마다 수행을 닦아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 소승경계(小乘境界)라 하여 별로 추구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한가지요 같은 길이나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또한 불경에 입각한 진실한 의미의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은 지금 흔히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자.

소승, 대승을 막론하고,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를 막론하고, 수행(修行)의 본질은 인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되찾아 부처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와 같이 부처의 성품에 눈을 떠서 본래 면목을 보게 되면(見性) 반드시 여러 가지 증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갖가지 시험과 장애가 가로막기도 한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터득한 경지에 자만(自慢)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불법(佛法)에 거스르는 일에 쓴다든가 하면 오히려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져 다시 그 경지를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성(佛性)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끝없는 평화가 와서 잠념이 없고

(계속)*